

보도시점 : 2024. 9. 20.(금) 06:00 이후(9. 20.(금) 석간) / 배포 : 2024. 9. 19.(목)

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

- 9월 21일 저녁,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도심 속 야외음악회
- 다가오는 가을, 군문화 페스타, 어린이 아트페어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어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21일 저녁,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“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”을 개최한다.

□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(지휘자 김성진)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,

-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,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·협연*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.

* (협주) 김현서(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, 한국예술영재교육원)

(협연) 스텔라 장(가수), 임선헌(소프라노), 존 노(테너), 박현수(바리톤·크로스오버)

□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(yongsanparkstory.kr)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,500석이 매진되었으며,

-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총 2,800석이 9월 14일 마감되었다.

- 이와 함께,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,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,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.

□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.

- 9.27~29일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전시, 군장비 체험,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‘군문화 페스타’가 예정되어 있으며,
- 10월 초, ‘아트페스티벌’을 개최하여 어린이 사생대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.

* 추후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 공지

□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“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정원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통해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”면서,

- “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정원을 찾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	책임자	과 장	정승수 (02-2131-20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기 (02-2131-2036)
협조부서	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본부	책임자	팀 장	최명실 (02-6716-2840)
		담당자	차 장	고민정 (02-6716-284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

 국토교통부
  LH 한국토지주택공사

용산

어린이정원

가족클래식

2024.9.21^토
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



 KBS교향악단	 김성진(지휘)	 김현서(바이올린)	 임선희(소프라노)
 존 노(테너)	 박현수 (바리톤, 크로스오버)	 스텔라 장(가수)	 김진현 아나운서 & 김벨 에아시아 (사회)

자세한 사항은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.